

## 중남미 주요국의 투명성 지수

(2014. 12. )

콜롬비아 보고타 사무소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e Internatioanl)는 2014년 투명성 지수를 발표
  - 우량하게 평가받는 국가는 덴마크 92점, 뉴질랜드 91점, 캐나다 81점, 미국 74점 등 순
  - 금년도 투명성 지수가 상승한 국가는 아프카니스탄, 이집트, 요르단, 말리 등 국가
  - 한편, 지수가 하락한 국가는 앙골라, 중국, 말라위, 르완다, 터키 등 국가
- 중남미 국가 중 칠레, 우루과이 등이 73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우량한 투명성 지수를 보유하고, 에콰도르 33점, 파라과이 24점,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정치적으로 위기로 점철된 베네주엘라는 19점으로 최하위에 등재
  - 콜롬비아는 175국가 중 파나마와 같은 94위로 지난해 36점 대비 변동 없음.

- 중남미 주요국 투명성 순위 및 점수 -

국명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	페루	파나마	볼리비아	멕시코	아르헨	에콰돌	파라과이	베네주엘라
순위	21	21	43	84	94	103	103	107	110	150	161
점수	73	73	69	38	37	35	35	34	33	24	19